

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9월 20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.

< 지혜와 미련함 >

로마서16:19 / 새찬송가 289 (통일 208)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

1.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생명이고 미련하게 행하는 것이 멸망이요 죽음입니다
지혜는 일을 잘 처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 곧 생명입니다(잠3:18). 미련하게 행하는 것은 일을 그르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 곧 죽음입니다(잠10:8). 인간의 몸이 양식을 먹어야 살 듯이 인생은 지혜를 얻어야 비로소 삽니다.

2.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는 것입니다

죄인 된 사람들은 스스로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. 오히려 세상의 지혜와 자신의 판단을 지혜롭다 여깁니다.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렇듯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받으면 저절로 건강과 장수와 넉넉하게 사는 것이 따라옵니다. 마치 솔로몬처럼 말입니다(왕상3:11-14). 모세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(시90:10-12).

3. 무엇이 지혜이며 무엇이 미련함일까요

미련함이란 스스로 죄 없다 여기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미련함이란 ‘욕심과 욕심이 잉태하여 낳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’를 말하기 때문입니다(롬1:21). 이런 상태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오직 회개뿐입니다(요일1:9). 그래서 회개가 지혜입니다.

이 미련함의 정체를 드러낸 말씀이 ‘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...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...’라는 구절입니다(엡 4:17-20). 결국 스스로 ‘죄 없다 함’은 미련함의 근본이요 ‘회개’는 원초적인 지혜입니다. 우리는 오직 회개함으로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.

지혜와 미련함을 가르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위로부터 온 것은 지혜요 땅에 속한 것은 미련함입니다(약3:14-16),(약3:17,18). 땅에 속한 것은 정욕과 귀신의 것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.

지혜와 미련함을 가르는 또 하나의 원칙은 하나님께로 부터 온 것은 지혜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것은 미련함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성령의 꿈과 비전이 지혜입니다. 동방박사들과 요셉에게도 성령의 지혜가 임하였습니다(마2:12),(마2:13-15).

우리는 성령으로 항상 꿈과 비전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. 성령이 주신 지혜와 꿈을 무시하면 결국 미련하게 행하게 됩니다.

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예측이나 예상에 따라 행하는데 이는 다 미련한 결과를 낳습니다. 인간의 예측과 예상은 늘 빗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.

악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할 때 다 관참을 것이라 예측하고 예상하면서 악한 일을 행합니다. 그러나 그 결과 모든 악행이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되니 이것이 미련함의 멸망인 것입니다(눅12:2).

< 적용 & 실천 >

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전에 나의 판단과 세상의 이치에 맞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결정과 선택 전에 짧게라도 주님의 지혜를 구합시다!